

| Bi-Weekly |

신영ESG

“기후위험, ESG 정책을 넘어 재무위험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다”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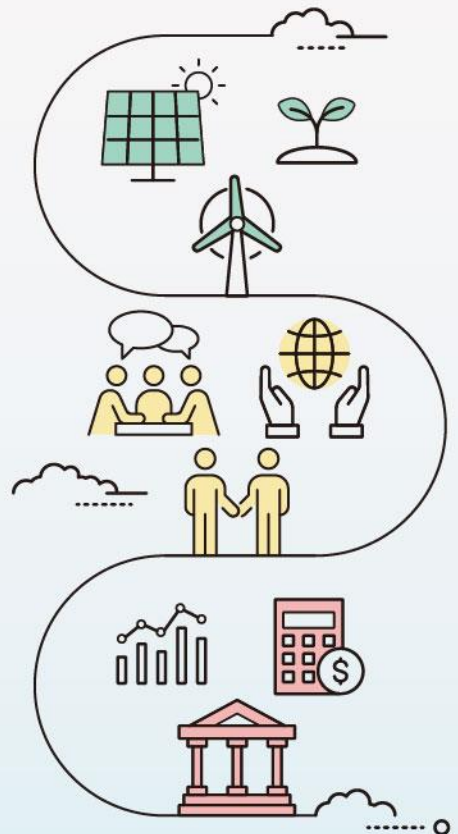
ESG 탐방 노트

한섬

ESG ETF 따라잡기

Calvert US Mid-Cap Core Responsible Index ETF
(CVMC)

ESG News Clipping



기후위험, ESG 정책을 넘어 재무위험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다

ECB, 기후위험을 반영해 담보 가치를 낮추는 기후 팩터를 비금융기업 회사채에서 비금융기업 대출채권까지 확대 → 기후 위험이 본격적으로 재무위험으로 반영되기 시작

이는 2021년 7월 발표된 기후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로 ECB가 지난 해 7월 비금융기업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시장성 자산에 대해 기후 팩터를 도입하기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사채 → 대출채권으로 확대됨

ECB, 회사채 담보에 이어 기업대출 담보까지 기후 팩터 적용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위험을 반영해 담보가치를 낮추는 '기후 팩터(climate factor)'를 비금융기업 회사채에서 비금융기업 대출채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이에 기후위험에 취약한 기업에 돈을 대출해준 은행은 앞으로 같은 액수의 대출채권을 ECB에 담보로 맡겨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게 됨.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후위험이 본격적으로 재무위험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판단됨.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발표된 기후 행동 계획의 일환임. 이후 2022년 7월 ECB 이사회는 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 체계에 더 많은 기후변화 고려 사항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업 채권 매입, 담보 체계, 공시 요건 및 위험 관리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ECB는 지난 해 7월 비금융기업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시장성 자산에 대해 기후 팩터를 도입하기로 함. ECB는 우선 회사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음. 이어 지난 7월에는 적용 범위를 비금융기업에 대한 적격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르면 2027년 말부터 시행 예정임.

도표 1. ECB,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 기후 변화 요소 통합 발표(2022.07)



the ECB press release of 21 July 2022: "ECB takes further steps to incorporate climate change into its monetary policy Operations"

자료: EC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는 유로시스템의 대차대조표상 기후변화 관련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임

이러한 조치는 ECB를 중심으로 한 유로시스템의 대차대조표상 기후변화 관련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으로 2022년 ECB가 발표한 통화정책의 기후 변화 요소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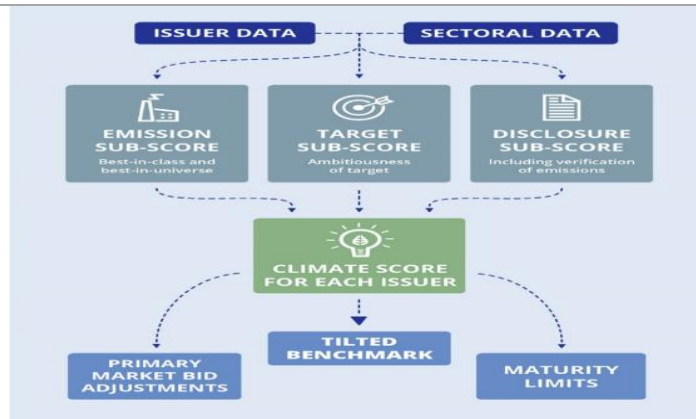
ECB, 통화정책의 기후 변화
요소 통합의 추진 방향

1) 회사채 보유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

1) 회사채 보유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

유로시스템은 회사채 보유 자산의 기후 성과를 고려하여 기후 성과가 우수한 발행사의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티팅(Tilting)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회사채 상환으로 발생하는 재투자 수요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 감축 목표의 적극성,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방식임. 이러한 전략은 유로시스템 대차대조표에 내재된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과 공시 개선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회사채 매입 규모 자체는 기후 요인이 아닌 통화정책적 필요성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원칙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함.

도표 2. ECB 기후 스코어 및 티팅 프레임워크



자료: EC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담보 체계 내 기후위험 반영

2) 담보 체계 내 기후위험 반영

유로시스템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에 대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신용거래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초기에는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시장성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하며, 기후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향상되면 적용 자산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회사채 담보의 위험도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 가치 감액(Haircut) 산정 시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할 것임.

3)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건 강화

3)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건 강화

유로시스템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 대상 기업이 발행한 시장성 자산 및 채권에 대해, CSRD가 완전히 시행된 이후 관련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만 담보로 인정하는 방향을 제시함. 이 조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및 시민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4) 기후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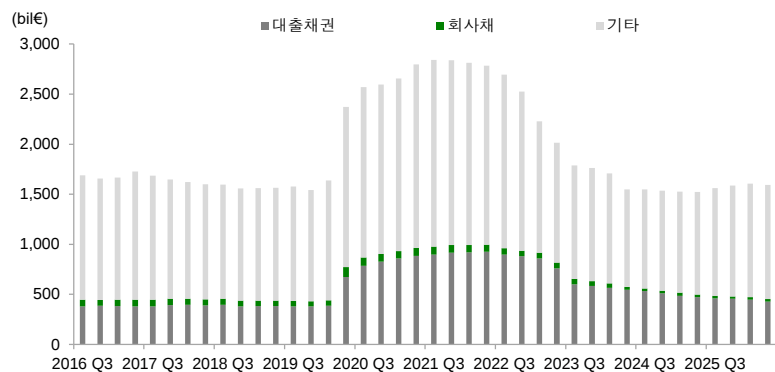
기후 팩터 적용 대상 담보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회사채(250억 유로)에 기업 대출채권(4,271억 유로)가 더해져 전체 담보 중 최대 27% 규모로 확대됨 → 기후위험이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정책을 넘어 통화정책 핵심 영역으로 편입됨

4) 기후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 강화

유로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 기후위험이 반영되는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공시 요건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이는 기후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공통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앙은행별 평가 체계 간 일관성을 높이고 유로시스템 차원의 기후 금융위험 관리 기반을 강화를 추진함.

이번 ECB의 발표로 기후 팩터가 적용되어 기후 할인 대상이 되는 담보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지난 6월 처음 적용되고 있는 회사채(250억 유로, 이중 비금융기업 채권만 해당)에 향후 훨씬 규모가 큰 은행의 기업 대출채권(4,271억 유로, 이중 비금융기업 대출만 해당)이 더해져 전체 담보 1조 5,934억 유로 중 최대 27% 규모로 확대됨. 이번 조치로 은행의 본업인 기업대출이 기후위험 평가 대상에 편입되면서 기후위험이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정책을 넘어 은행의 담보와 유동성 관리라는 통화정책 핵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음.

도표 3. ECB 담보 자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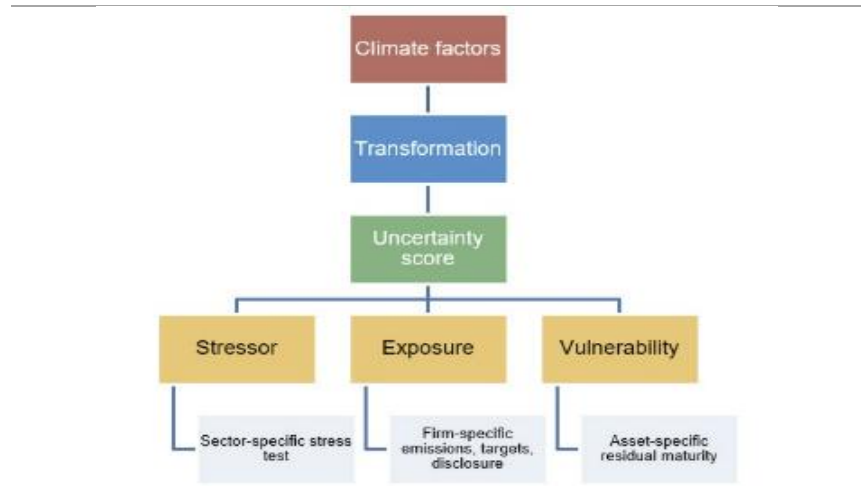
자료: EC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후 팩터의 핵심인 불확실성 점수는 ①스트레스요인-업종 위험, ②노출도-개별 기업의 전환 위험 ③취약성-대출 채권의 잔존 만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됨

기후 팩터 모델은 2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적용되는 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각 비금융기업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시장성 자산에 '불확실성 점수(uncertainty score)'를 부여함. 이 점수는 특정 시장성 자산이 기후 전환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가려내는 데 사용되는 데, 이 불확실성 점수(uncertainty score)는 ①스트레스요인-업종 위험, ②노출도-개별 기업의 전환 위험 ③취약성-대출 채권의 잔존 만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됨.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산별 불확실성 점수를 기후 팩터로 변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운용위원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재조정됨. 이 단계를 통해 불확실성 점수는 기존의 할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수치로 변환되어,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낮추게 됨. 기후 팩터를 적용한 기후 할인의 실제 적용은 기존 헤어컷을 적용한 담보가치에 추가적인 삭감 요소로

작용하게 됨. 단,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합하여 기후 팩터 때문에 추가로 줄어드는 최종 담보가치는 최대 5%로 제한됨. 특히 ECB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탄소화 목표, 기후 관련 공시의 질을 노출도 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의 기후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전환 계획이 부족하면 담보 가치 산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기업은 기후 공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임.

도표 4. 기후 팩터와 그 구성 요소



자료: ECB,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후위험 중 현재 ECB가 주목하는 위험은 '전환위험' →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험을 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반영해 관리

기후위험 중 현재 ECB가 주목하는 위험은 '전환위험'으로 탄소가격 인상, 기후 규제 강화, 소비자 행동 변화 등으로 고탄소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을 담보가치에 미리 반영하는 정책임.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위험을 유로시스템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반영해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ECB의 기후 팩터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현재까지 ECB의 기후 팩터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CB에 따르면 아직까지 은행들의 중앙은행 차입 규모가 낮고 회사채를 담보로 사용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와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들의 중앙은행 유동성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영란은행도 ECB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도입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도 이에 따른 준비를 민관 모두 서둘러야 할 것임

최근 영란은행은 10월 31일부터 '회사채 담보에 새로운 헤어컷과 추가 조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영란은행은 ECB와 유사하게 녹색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회사채에 대해 헤어컷을 높이고, 석탄 채굴 관련 기업의 채권은 적격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미국의 FED와 한국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기후 위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도 이에 따른 준비를 민관 모두 서둘러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AI로 선한 가치 실천"...SK텔레콤,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 SK텔레콤이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AI 기반 지속가능경영 비전인 '두 더 굿 AI' 실천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형 전시 부스를 공개
- 보이스피싱 방지(에이닷 전화 가족케어), 금융사고 탐지(FAME), 취약계층 안부 확인(AI 케어콜), 발달장애인 지원(케어비어) 등 사회 안전 및 포용을 위한 핵심 AI 서비스와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
-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스케치 포 굿' 참여 기업과 함께 디지털 돌봄, 기후재난 대응, 범죄 예방 분야의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

Comments

- SK텔레콤은 9월 21~22일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AI를 활용한 ESG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공개
- 행사에서는 SKT의 ESG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돌봄·기후재난·디지털 범죄 예방 관련 해결책을 발표하는 'SKTCH 콘서트'도 진행
- SK텔레콤은 AI 기술을 보이스피싱 예방·사회적 약자 돌봄·기후재난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고 있음

- Analyst 정원석

"탄소중립·클린뷰티 쓰면 매출 4% 벌금"... EU, 9월 27일부터 '그린워싱' 화장품 전면 금지

- EU의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ECGT)'이 2026년 9월 27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전면 시행되며, EU 내 판매 및 역외 전자상거래를 전개하는 모든 화장품 기업에 동일 적용
- 제3자 공인인증 없는 '친환경·클린뷰티' 등 포괄적 문구, 외부 탄소배출권 상쇄에 기인한 '탄소중립' 표현, 자체 제작 지속가능성 라벨 및 과장된 친환경 주장이 금지
- 제품 포장뿐 아니라 상세페이지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연 매출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이커머스 상품 디리스팅 등 즉각적인 시장 퇴출

Comments

- 위반 시 연 순이익이 아닌 매출의 최대 4%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억제력이 강한 지침으로 보임
- 최근에는 ODM사에서 EU 환경 규제 대응을 브랜드사 대신 진행하거나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중소 ODM사 대비 영업 및 규제 관련 대응 인력이 탄탄하게 구성된 대기업 양사의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조치로 판단

- Analyst 이교석

지속가능펀드, 상반기 수익률 전통펀드 추월...2분기 자금유입은 둔화

- 최근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Morgan Stanley Institute for Sustainable Investing)는 ESG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인 'Sustainable Reality' 보고서를 발표함
- 2026년 상반기 ESG 펀드 수익률은 4.9%, 일반 펀드는 4.0%로 0.9%p 앞서는 성과를 기록함 → 주식형 강세가 성과 견인
- 운용자산 4.2조달러 '사상 최대'...2분기 자금 유입은 둔화

Comments

- 발표하는 곳(모닝스타, 모건스탠리 등)마다 유형 구분 이슈 등으로 차이가 존재하나 주요 흐름은 유사함 → 글로벌 ESG 펀드 규모 사상 최대 (또는 근접),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지역별 차별화 (미국, 유럽 순유입 vs 아태 지역 순유출) 등
- ESG 경영에 충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해 수익률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ESG 펀드가 일반 펀드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북미, 아태 지역이 강세를 보였음
- 미국은 AI 전력망·반도체, 유럽은 채권·패시브 부각

- Analyst 오광영

한섬(020000.KS)

매수(TP 26,000원)

자원순환을 통한 ESG 실천

현재주가(9/28)

20,350원

ESG 등급 현황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9. 28)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시가총액(억원) 4,371
Bloomberg - - - -		배당수익률(26F, %) 4.3
주: KCGS : S~D 7등급		외국인지분율(%) 22.1
Bloomberg: 100 만점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홈쇼핑 42.3 %
		국민연금공단 9.8%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2 2.6-21.7 33.9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5.7 20.7-48.4 -69.6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 분	구 분	구 분
2024	2024	내 용
2025	2025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근로손실 재해율 (%)	주주총회
8,523	0.61%	4주 전 소집공고
8,173	0.31%	
폐기물 발생량 (톤)	기간제 근로자 비율 (%)	전자투표제
1,631	7.0%	도입 및 시행
1,535	6.7%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여성 근로자 비율 (%)	집중투표제
미공시	69.7%	미채택
미공시	69.7%	
환경 경영 인증	사회공헌 기금 (백만원)	배 당
ISO 14001 인증	1,112	결산배당(연 1회)
	1,192	
환경 경영 조직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이사회
ESG 경영위원회	실시 중	운영 실적
		7회

ESG 관련 최신 활동

한섬, 2028년까지 매년 100억원 자사주 매입·소각	한섬, 서울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 수상	한섬·현대이지웰, '야생생물 보전 후원' 기업으로 선정
(연합뉴스, 26.09.18)	(이데일리, 26.06.26)	(연합뉴스, 26.04.01)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2028년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자가주식을 매입한 뒤 전량 소각하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 2026년 자기주식 65만3,168주를 장내 매수한 뒤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발행주식수의 약 3.0% 규모 - 배당재원 최소 기준을 별도 영업이익의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당 최저배당액도 7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	-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 에너지 부문 우수상을 수상 2025년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2023~2024년 평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9톤을 감축 - 사옥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전면 교체하고 전력수요관리제도에 지속 참여하는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	-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받음 - 한섬은 2023년 국립생태원과 협력을 시작해 수달 서식지 보전 및 멸종위기 식물 서울개발 나물 복원 활동을 지속해옴 2024년 서울식물원 100개체, 2025년 종량천 200개체를 이식하는 등 다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음

ESG history

연 령	내 용
2022년	[E] 데님 협력사 폐수 정화설비 지원 시작
2023년	[E]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 도입 및 RCS 인증 취득 [S] 협력사 ESG 컨설팅 도입
2024년	[S] 국내 패션기업 최초 자체 협력사 ESG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G] 2024~2027년 중장기 배당정책 공시 [ESG]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재인증 [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S/G]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G]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 전원 독립이사 구성 [ESG] 서스틴베스트 ESG 베스트 기업 100 상·하반기 연속 선정
2026년	[G] 보유 자기주식 960,753주 전량 소각 [E]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인정' 기업 선정 [E]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ESG] 서스틴베스트 2026년 상반기 ESG 평가 AA등급 획득 [G] 2026~2028년 매년 100억원 자기주식 매입·소각 정책 발표 [G] 배당재원 기준 및 주당 최저배당액 상향

순환경제 기반의 친환경 Value Chain 구축

한섬은 의류·잡화·뷰티·라이프스타일 부문에서 약 40여개의 자체 및 수입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임. 전체 브랜드에 대해 국내 1,000개 이상의 백화점 및 아울렛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판매 채널로는 더한섬닷컴, H패션몰, EQL 3개의 자사몰을 보유하고 있음. 한섬은 패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기획·구매·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 자원순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2025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재인증을 완료했으며,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등의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구축해 환경 성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함.

특히 한섬은 패션기업의 핵심 환경 이슈인 소재와 재고·포장재의 순환 이용에 적극적인 모습임. 물류센터에서 회수한 플라스틱 옷걸이 약 5만 개를 재활용하면서 신규 옷걸이 발주량을 전년 대비 42.3% 줄였고, 폐기 폴리백을 재활용 원료로 다시 폴리백 생산에 사용하는 순환체계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2025년 물류센터 보관용 박스를 100% 다회용 박스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완충재 사용을 중단하는 등 물류 단계에서도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있음.

환경경영의 범위를 공급망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임. 2025년 8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실시했고, 환경 부문 평균 평가점수는 컨설팅 전 254.9점에서 291.5점으로 크게 개선됨. 향후에는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 확대와 지속가능 원재료 구매, 공급망 환경관리 성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현재의 개별 활동을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지배구조 강화 및 적극적인 주주환원

한섬은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와 ESG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ESG 주요 현안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2025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의 구성을 전원 독립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이사 선임과 경영진 보상 과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강화함. 또한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역시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운영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고 있음.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중심으로 상장 계열사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과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섬 역시 이러한 그룹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그룹은

2026년 현대백화점, 한섬 등 주요 계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요 계열사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함.

한섬은 2024년 11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PBR 0.5배, ROE 6%, 2024~2027년 누적 주주환원율 35%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PBR 0.7배, ROE 9%, 매출 2조원 달성을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수익력 개선과 함께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함.

실제 이행 속도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고 있음. 2024~2025년 누적 주주환원 금액은 543억원, 누적 주주환원율은 60.1%를 기록해 4개년 목표인 35%를 이미 넘어섰으며, 2026년 4월에는 잔여 자기주식 960,753주를 전량 소각함. 현금배당 역시 2024년과 2025년 각각 주당 750원을 지급하였으며, 2년 누적 배당성향은 35.4%를 기록함.

최근에는 주주환원정책을 한 단계 더 강화함. 2026년 9월 한섬은 2028년까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배당재원 기준을 별도 영업이익의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주당 최저배당액을 75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함. 우선 2026년에는 발행주식수의 약 3%에 해당하는 65만3,168주를 매입해 연내 소각할 계획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목표를 조기에 이행한 뒤 다시 환원 수준을 높였다는 점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 향후에는 본업의 수익성 회복을 통해 ROE 개선까지 동반될 경우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개선의 선순환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함.

Calvert US Mid-Cap Core Responsible Index ETF (CVMC)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9.28)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3/01/30	HEWLETT PACKARD	0.74%	(USD)	운용자산(우)
기초지수	Calvert US Mid-Cap Core Responsible Index	MODERNA INC	0.67%		
구성종목수	590	TARGET CORP	0.63%	NAV(좌)	(\$mn)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111.09	TERADYNE INC	0.57%		
시장가액(USD)	74.11	KEYSIGHT TECHNOLOGIES INC	0.56%	24.01	24.04
NAV(USD)	74.06	NATERA INC	0.53%		
총보수(%)	0.15	AMETEK INC	0.53%	25.01	25.04
운용사	Calvert	ARTHUR J GALLAGHER & CO	0.52%		
		PACCAR INC	0.51%	26.01	26.04
		DELTA AIR LINES INC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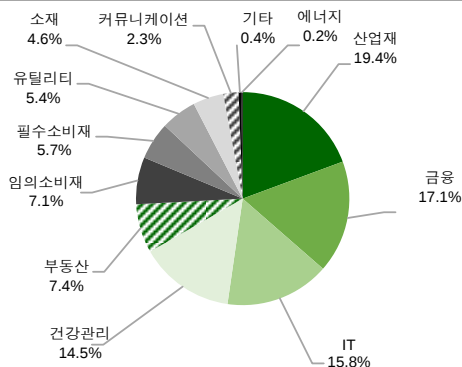
ETF 개요

Calvert US Mid-Cap Core Responsible Index ETF (CVMC)는 2023년 1월 상장된 ETF로, 벤치마크 지수인 Calvert US Mid-Cap Core Responsible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Russell Midcap® Index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시가총액 기준 미국 상위 200위에서 1,000위 사이의 기업들 중에서 독자적인 ESG 가이드라인인 캘버트 원칙(Calvert Principle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구성함. 캘버트 원칙은 환경 지속가능성 및 자원 효율성, 공정한 사회 및 인권 존중, 책임 있는 지배구조 및 투명성 등 ESG 지표를 통해 기업 활동을 평가함. 또한, 기업이 사업 영역에서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주 가치 및 사회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역량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ESG 선별 기준을 적용하며, REIT와 BDC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 지수는 매년 재구성되며 분기별로 리밸런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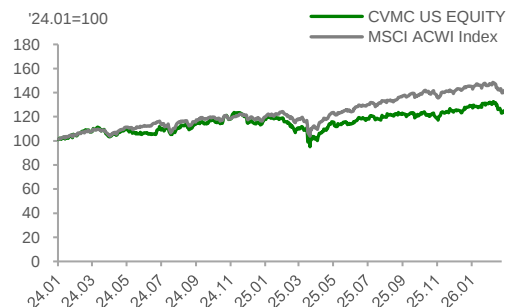
CVMC는 지속가능 투자를 선도하는 Calvert에서 운용하는 ETF로 미국 중형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추종하여 긍정적인 글로벌 변화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함. 보유 종목이 600개 가까운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보유 종목 중 상위 10개 종목의 합산 비중이 전체 자산 규모의 5.6% 밖에 되지 않음. 미국의 중형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 중 우수한 ESG 관행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 고려시 투자 대안으로 검토를 추천함.

CVMC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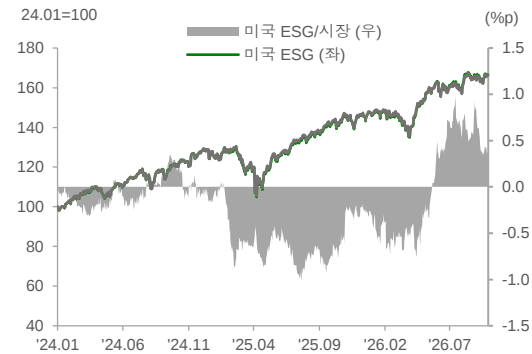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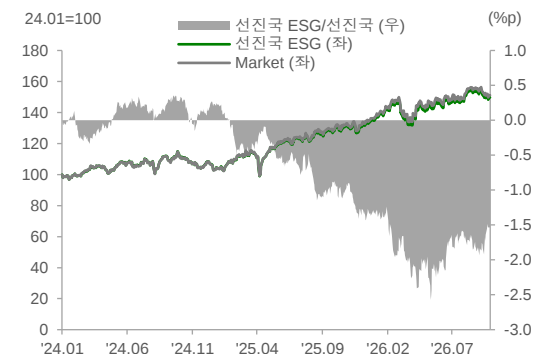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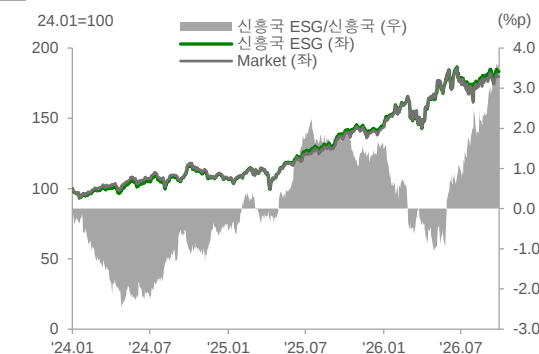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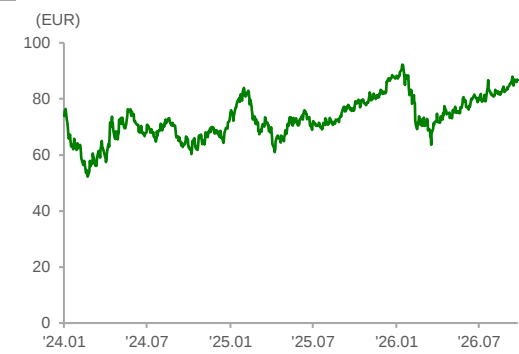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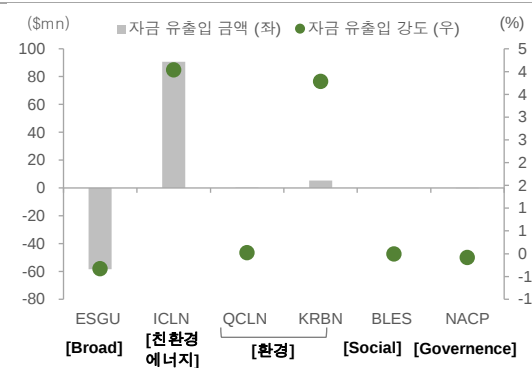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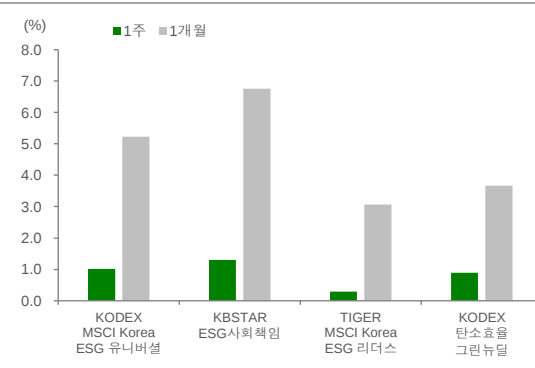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7,876	60	76.3%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6,751	13	13.1%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44	13	5.4%	13.4%
4	Social	6,175	5	4.8%	5.2%
5	Governance	470	3	0.4%	3.1%
6	기타	0	3	0.0%	3.1%
ESG 전체		128,215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8,109	-0.3	0.0	5.1	22.3	-58	462	-0.3	2.6
	ESGV	13,573	-0.3	0.4	5.8	25.8	-41	103	-0.3	0.8
	SUSL	1,227	-0.2	-0.6	5.8	24.0	14	60	1.1	4.9
	NULV	2,531	-0.3	-0.9	6.6	19.7	16	260	0.6	10.3
	NUSC	1,247	-1.1	-4.3	-4.6	12.1	2	-138	0.2	-11.1
	ESGE	7,061	-1.2	2.4	3.4	24.8	-5	49	-0.1	0.7
	ESGD	12,026	-0.7	-1.9	2.9	13.3	21	77	0.2	0.6
	EAGG	4,985	-1.1	-2.4	-4.3	-3.5	28	833	0.6	16.7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248	-3.1	-1.7	-11.7	-3.8	91	353	4.0	15.7
	TAN	901	-5.8	-9.9	-22.6	-19.4	-102	89	-11.3	9.9
Environment	QCLN	562	0.8	0.9	-14.0	8.3	0	-15	0.0	-2.6
	SPYX	2,866	-0.3	0.1	5.3	22.3	4	55	0.1	1.9
	CRBN	1,180	-0.5	-0.1	4.3	19.7	0	61	0.0	5.2
	KRBN	139	-0.4	-0.9	2.9	16.8	5	-35	3.8	-25.1
Social	BLES	160	-1.2	-4.2	1.4	10.3	0	14	0.0	8.8
Governance	SHE	335	-0.1	0.2	4.3	27.1	0	-7	0.0	-2.1
	NACP	77	-0.1	2.7	4.1	30.0	0	0	-0.1	-0.2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09	1.0	5.2	-14.6	46.2	0.0	-29.8	0.0	-14.2
FOCUS ESG 리더스	75	0.0	-2.1	-4.4	12.8	0.0	-53.2	0.0	-70.5
KODEX 200ESG	1,688	1.2	5.4	-17.4	49.7	0.0	491.5	0.0	29.1
KBRIS ESG 사회책임	7,045	1.3	6.8	-19.0	53.0	44.9	4,193.0	0.6	59.5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207	1.0	4.9	-15.4	50.5	-43.1	-30.8	-20.8	-14.9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78	0.3	3.1	-14.7	46.7	0.0	-50.7	0.0	-28.5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58	0.9	3.7	-14.8	31.4	0.0	-169.9	0.0	-37.1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27	0.9	3.6	-14.5	31.7	0.0	-18.5	0.0	-8.1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26	0.9	3.8	-14.9	32.3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9.28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9.14) xAI·얼라인드, 배터리로 AI 데이터센터 계통접속 앞당겨…美 규칙 개편-Impact-on

- 스페이스XAI, 피크 때 최대 4시간 전력망서 빠진다
- 얼라인드도 배터리 설치…4년 넘던 접속 대기 줄여
- 美, 피크 때 전력 줄이면 조기 계통접속…대형 수요처 규칙 개편

(2026.09.14) 대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년간 89건…SK 21건 최다-ESG경제

- 총 89건 가운데 SK그룹(21건), 포스코(16건), LG그룹(15건), 한화그룹(10건), 롯데그룹(9건), GS그룹(8건) 순

(2026.09.15)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환경 대시보드 구축…뉴멕시코서 새 실험-Impact-on

- 왜 데이터센터가 '환경 대시보드'까지 만들었나
- 독립 전문가 연 2회 감사… 물 절약 스타트업 손잡고 지역 상생

(2026.09.15) 폐원전 자리에 '1GWh 배터리'…바덴폴, 독일 최대급 ESS 짓는다-Impact-on

- 2007년 멈춘 원전 부지, 2028년 '4시간급 배터리'로
- 자체 용량 2배로 확장… 2029년 1500MW 유연성 자산 최적화

(2026.09.16) 텍사스 데이터센터 규제 폭탄…엔비디아, 구글 출신 에너지 총괄 영입-Impact-on

- 물 사용 안 밝히면 '경범죄' 처벌… 허가 취소하고 474GW 전력망 차단
- 인프라 규제 덩치자… 엔비디아, 구글 에너지 총괄 사바나 굿맨 영입
- "AI는 디지털 아닌 물리적 실체"… 연산 성능 넘어 전력·수자원 생존 경쟁

(2026.09.18) 구글, '스테그라'와 초대형 그린스틸 인증서 거래-Impact-on

- 철강 9만1000톤 대신 '감축속성'만 구매…그린 프리미엄 분리 거래
- AI 붐에 온실가스 18% 급증… MS 이어 구글도 '복합클레임' 합류

S (사회)

(2026.09.16) LVMH·구찌·아디다스, DPP 활용 본격화…브랜드별 쓰임 달랐다-Impact-on

- 39곳 중 7곳만 DPP 명시…선도기업은 이미 사업에 적용
- LVMH는 수선·구찌는 농장 추적…사업모델 따라 활용 달라져
- 아디다스는 판매 이후까지 추적…EU도 DPP 인프라 가동

(2026.09.17) 보쉬 렉스로스, 1억7000만개 제품정보 표준화…DPP 대응에 활용-Impact-on

- 최종 제조사 데이터 요구, 하위 협력사까지 내려간다
- PCF·인증·CAD 한 틀에…보쉬, 제품 데이터 '공통 양식' 적용
- 표준화한 데이터 포털로 제공…국내 공급망도 실증

(2026.09.22) 화승 인니, 한 달 새 노동자 3명 해고 갈등…노동당국·지방의회로 리스크 확대-Impact-on

- 노동자 2명 음주 이유로 해고…회사·노동자 주장 엇갈려
- 10년 근속자 해고도 분쟁…노동당국 거쳐 지방의회로

G (지배구조)

(2026.09.21) 합산 3%를 영향 본격화…재계, 감사위원회 방어 안간힘-서울경제

- 시행 이후 판 바뀐 상장사 이사회
- 85%가 최대주주 안건 통과했지만
- 소액주주 잡으려 배당 등 대폭 늘려
- 고려아연·IBK는 결국 선임 부결
- "의사결정·감사기구 방어 어려워져"
- 전자주총에 행동주의 입김 세질듯

정책 ESG 뉴스

ESG

(2026.09.14) 美 S&P500, ESG 홍보는 축소·검증은 강화·외부검증 75%→Impact-on

- 보고서는 계속 내지만 홍보는 줄었다...보도자료 발표 62%→32%
- 홍보 줄이는 대신 검증 강화...외부검증 75% 이중중대성 51%
- 지속가능성 감독, CEO 줄고 법무책임자 부상...ESG 목표 조정 6배 증가

(2026.09.21) EU, 개정 ESRS 디지털 공시체계 마련...EFRAG XBRL 초안 공개-Impact-on

- 개정 ESRS 데이터포인트마다 전자태그...서술형 공시도 적용
- ISSB·GRI 공시체계와 데이터 연계 고려...중복 태깅 줄인다

E (환경)

(2026.09.16) EU 의회, CBAM 개정안 확정...집행위·이사회보다 규제 강도 높여-Impact-on

- 의회는 457개 집행위는 180개...CBAM 완제품 범위 놓고 EU 기관 이견
- EU 수출품에 저탄소 원료 몰아주기 차단...CBAM 회피 규정 강화

(2026.09.15) 美 EPA, 발전소 탄소규제 대부분 폐지...13억8000만톤 감축 경로 바뀐다-Impact-on

- 발전소 규제 대부분 폐지...남은 기준도 없앤다
- 13억8000만톤 감축 경로 뒤집어...EPA는 비용절감 강조
- 전력망 탈탄소 정책 후퇴...기업 Scope 2에도 연결

(2026.09.17) 중국,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본격화...배터리·태양광 등 17개 품목 기준 마련-Impact-on

- 배터리·태양광 등 17개 품목 인증...현장검증·공급망 데이터까지
- 상하이, 인증기업에 배출권 할당 0.5% 추가...탄소정책과 연계

(2026.09.22) EU, AI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물효율 A~G등급 매긴다-Impact-on

- PUE 1.15 이하면 A등급...데이터센터 효율을 숫자로 비교한다
- AI 데이터센터 3배 늘리는 EU...“전력·물 부담까지 3배 늘릴 수 없다”

S (사회)

(2026.09.15) 플랫폼 노동 규칙 정비 확산...韓 ‘근로자 추정제’, 아세안 가이드라인 착수-Impact-on

- 韓, 근로자 추정제 추진...노무제공자 고용보험도 확대
- 배민은 스케줄 폐지·보험사는 N잡 확대...업무 통제가 쟁점
- ILO 이어 아세안도 기준 마련...비직원 관리·알고리즘 통제 점검해야

(2026.09.16) EU, 2.5조유로 공공조달법 전면 개편...품질 30%·유럽산 우대-Impact-on

- 품질 최소 30%...가격만으로 낙찰하던 관행 줄인다
- EU·협정국 우대 가능...비협정국 저가 입찰 견제
- NZIA 산업가속화법 이어 공공조달 전체로 확대

(2026.09.18) 美 의회,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전가 차단’ 입법 통과...찬성 417표 대 3표-Impact-on

- 찬성 417표 대 3표 초당적 가결... 100MW 초과 시설 ‘비용 전액 부담’ 의무화
- 송배전망 넘어 ‘발전소 건설비’까지 독박 가능성... “완공 늦어질 수도”

G (지배구조)

(2026.09.23) 이찬진, 이변엔 금융자회사 CEO 선임 정조준...절차 보완 주문-ESG경제

- 8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선임과정의 공정 투명성 재차 강조
- CEO의 구체적 자격 요건,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언급
- 지자체 금고 입찰 공정경쟁 당부...“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영향 살필것”

일반 ESG 뉴스

ESG

(2026.09.17) 지속가능펀드, 상반기 수익률 전통펀드 추월...2분기 자금유입은 둔화-Impact-on

- 수익률 4.9%로 앞섰지만...자산 증가는 투자수익이 건인
- 북미·유럽서 장기 유출 멈춰...아시아는 75억달러 빠져
- 미국은 AI 전력망·반도체, 유럽은 채권·패시브 부각

(2026.09.16) "ESG 공시, 재무제표 수준 감독 필요...이사회·감사위 역할 확대"-ESG경제

- 감사위 감독 범위, ICSR·외부 인증까지 확대
- "공시 준비 1~1.5년...연결·재무연계 체계 구축해야"

E (환경)

(2026.09.14) ECB, 666조원 기업대출 담보에 '기후위험' 반영...은행들 "계산식 공개하라"-Impact-on

- 회사채 39조원에서 대출채권 666조원으로...적용 대상 17배 커졌다
- 업종 위험·기업 노출도·만기 반영...최대 5% 추가 삭감
- "구조는 공개하지만 기업별 점수는 비공개"...은행권이 문제 삼는 이유
- 기후위험, ESG 정책 넘어 '담보·유동성'으로 들어왔다

(2026.09.15) [COP31 튀르키예에 안탈리아로 가는길] ③ "태양광만 늘려선 안 된다"... UNFCCC, 그리드·ESS·메탄·폐기물 제사-ESG경제

- COP31 앞두고 기후정책 무게중심 '협상과 목표'에서 '투자'와 실행'으로
- 재생에너지 다음 병목은 송전망·저장장치...전기화와 함께 핵심 실행과제로
- 메탄·제로웨이스트·식량·도시·보건까지 기후정책 범위 확대

(2026.09.18) 신흥국, 화석연료 성장단계 건너뛰다...아프리카 태양광 설치 45% 증가-Impact-on

- 아프리카 태양광 설치 45% 증가...인도도 연 40% 이상 성장
- 화석연료 수입국 6개월간 3300억달러 추가 부담
- 중국산 설비가 전환 뒷받침...화석연료 성장단계 건너뛰다

(2026.09.21) "AI 전력 공포는 착시"... 월가 기후 거물들 "탄소 배출 5대 주범에도 못 낀다"-Impact-on

- "매립지 배출량보다 미미"... 과장된 AI 전력 공포에 찬물 끼얹은 월가
- 빅테크, 4시간 리튬이온 한계 넘어서... 100시간 '장주기 배터리'로 직행
- "공급망 탈중국·망 병목 해소"... AI 자본이 여는 청정기술의 미래

(2026.09.23) 전기·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희토류 자석 재활용 추진-ESG경제

-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총 1180MW 규모 사업자 선정
- 전력수요 급증 전망에 '원전 역할' 묻는다...3개월 공론 진행

S (사회)

(2026.09.14) 핵심광물 기업 4곳 중 3곳, 공급망 추적 투자 확대...원산지 넘어 소유구조까지-Impact-on

- 원산지 국가는 93% 확인...전체 이동경로 추적은 제한적
- 75% 투자 확대 계획...고객 요구가 확산 건인
- 원산지 넘어 소유구조까지...비축·조달에도 추적정보 활용

(2026.09.17) ISSB, '인적자본' 대신 '인력 공시' 명칭 변경하나...구체화 추진-Impact-on

- 추상적 '자본'에서 구체적 '인력'으로... 본사 직원과 공급망 근로자 분리
- 단순 이직률 공개는 무의미... AI발 인력 전환과 현금흐름 연계성 검증
- 24일 몬트리올 회의서 판가름... 정식 기준 제정 단계 진입할까

G (지배구조)

(2026.09.22) CEO추천위 둔 대기업 이사회 여전히 3%대...2년새 되레 2곳 감소-ESG경제

- 리더스인덱스 조사...50대 그룹 중 별도 설치는 포스코홀딩스 유일
- 500대 기업 이사회 내 CEO후보추천위 12곳...설치율 3.1% 그쳐
- 감사위 전년보다 2곳 증가 309곳...ESG위는 231곳. 60% 못미쳐

Compliance Notice

투자등급

기업분석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분석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 (20260630)	매수 : 90.45%	중립 : 9.55%	매도 : 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한섬	-	-	-	-	-	-	-	-

